육아정책 Brief

통권 제28호 | 발행인 : 이영 | 발행일 : 2014년 8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08 August

다문화가족, 영유아 중심의 지원 정책 강화되어야

Ⅰ. 다문화가족 영유아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그 지원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은 주로 성인의 적응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지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취학전 영유아에 초점을 둔 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영유아 자녀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영유아기의 경험이 향후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원 강화가 필요함.

다문화가족 자녀 중 영유아 자녀 비율이 월등히 높고, 전체 영유아 대비 약 3.6%를 차지함에도 취학전 영유아에 초점을 둔 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 7월 2일 발표한 2014년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0~2세가 53,046명, 3~5세가 52,305명으로 만 5세 이하의 취학전 영유아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51.6%에 달함. 이는 만 5세까지 전체 영유아 대비 약 3.6% 정도에 해당하여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인 3.1%보다 높음.
  -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영유아가구 중 3.9%는 어머니가 결혼이민자이며, 읍면지역에서는 8.2%, 대도시에서는 3.4%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한 선도적인 접근 방안일 수 있음.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은 향후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측되므로, 선도적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음

Ⅱ. 다문화가족 양육 환경 및 양육 특성[1)]

-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해 양가적(兩價的)인 측면을 경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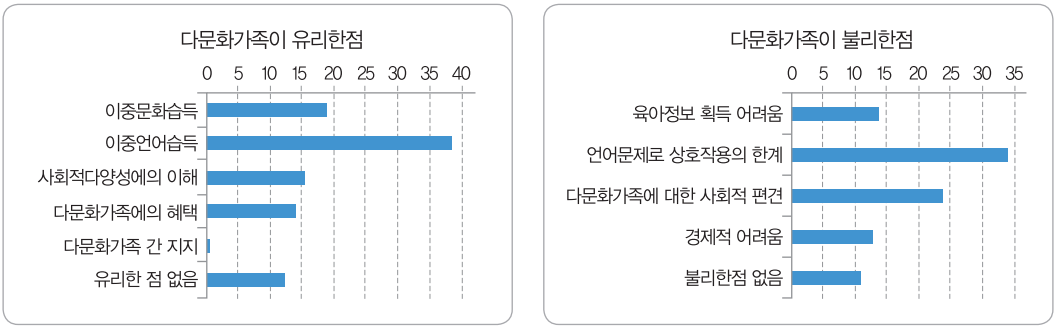
1) 장명림 외(2013)의 결과를 토대로 함. 조사대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 530명과 다문화가 아닌 가족 어머니 428명임(2013. 10.).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해 양가적인 측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양육에 이중 언어의 습득(38.5%)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언어문제로 인한 긴밀한 상호작용의 어려움(34%)은 자녀양육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함

▶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족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49.2%)가 자녀가 위축될까 염려하는 경우(37.7%)보다 높게 나타남.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은 집단에서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가 위축될까 염려하는 비율이 50.7%로 높음.

▶ 자녀양육에 유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이중 언어의 습득(38.5%), 이중 문화의 습득(18.9%),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15.5%),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14.3%) 등이며 유리한 점이 없다는 응답도 12.3%로 나타남.

▶ 자녀양육에 불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언어문제로 인한 긴밀한 상호작용 한계(34%)가 가장 크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23.8%), 육아정보 획득의 어려움(13.8%), 경제적 어려움(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혀 불리한 점이 없다는 응답도 10.9%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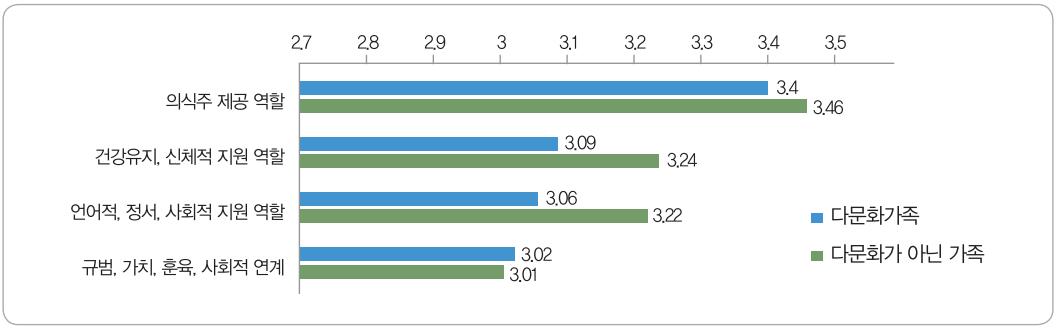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족으로 자녀양육 시 강점과 불리한 점[2)]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 양육기술, 양육태도, 양육참여정도 등에서 다문화가 아닌 가족보다 상대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기술 정도가 다문화가 아닌 가족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자녀양육 기술(김희진 외, 2011)을 의식주 제공과 관련된 부분, 건강유지와 신체 및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부분, 언어 정서 사회적 지원정도,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이 다문화가 아닌 가족 어머니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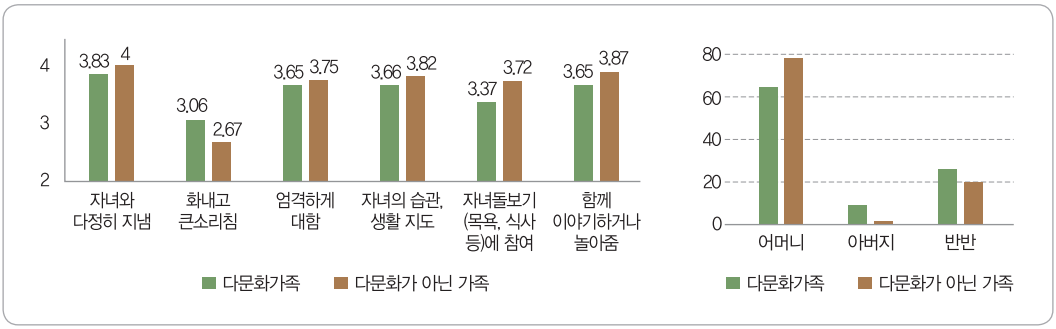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 아닌 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 기술 점수(4점 척도)

● 다문화가족 아버지가 다문화가 아닌 가족 아버지에 비해 부부 중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비율은 높으나, 양육태도나 양육참여정도 등 양육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남.

▶ 자녀와 다정하게 지내며, 화내거나 큰소리를 치지 않고, 목욕이나 식사를 도와주며,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등의 양육 행동에서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이 보다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2) 장명림 외(2013)의 결과를 토대로 함. 조사대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 530명과 다문화가 아닌 가족 어머니 428명임(20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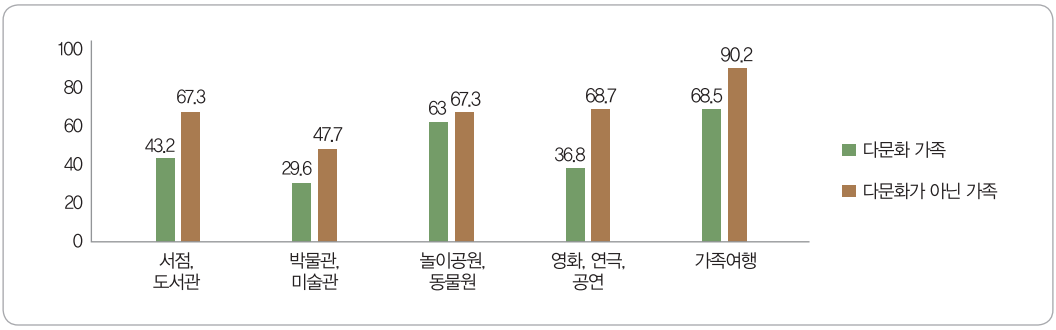


[그림 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참여정도

다문화가족은 여가 및 문화생활 경험비율이 다문화가 아닌 가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 다문화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경험비율이 다문화가 아닌 가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 지난 3개월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자녀와 함께 방문한 곳을 조사한 결과, 놀이 공원이나 동물원을 방문했었다는 비율은 유사하나, 가족여행이나 서점이나 도서관의 방문,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용, 영화나 연극 등 공연 관람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의 문화생활 경험이 다문화가 아닌 가족의 경우에 비해 적음.



[그림 4] 자녀와의 문화생활 경험비율

● 가족의 배경과 관계없이 양육정보의 기관의존도 높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아기 부모의 주된 정보전달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다문화가족(82.8%)과 다문화가 아닌 가족(76.9%) 모두에서 자녀가 재원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 아닌 가족에 비해 인터넷이나 방송, 책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지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우나, 이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에의 접근이 방송이나 도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Ⅲ. 다문화가족 영유아지원 강화 방안

부모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육아지원기관 적응 문제별, 자녀성장 발달 단계별 실질적 지원이 요구됨.

▶ 한국어 수준이 적응의 중요변인이나, 적응 이후 심리적 위축 문제 또는 자녀 성장과정에 따른 양육 지원 등 또 다른 요구 수렴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특성이나 배경을 고려한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
  - ▶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다문화가족 배경국가나 부모 개인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큼을 감안하여 양육지원의 내용과 방법에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양육지원 및 협력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자녀 양육에 많은 관여를 하는 조부모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다문화가족 지원 시 안정적 적응을 이룬 다문화가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영유아가 많은 시간 머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가정과 연계된 다면적 양육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지원 주 정보처이며, 또한 누리과정 시행으로 2013년 현재 3세 84.5%, 4세 93.6%, 5세의 96.1%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상황으로(이정원·이혜민, 2014) 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유아 및 부모 지원 효과가 클 것임.
  - ▶ 영유아의 주 양육환경인 기관과 가정이 연계할 때 일관성 있는 양육지원이 가능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일반 특성, 국가별 양육 특성, 다양한 정보·자료가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 아닌 가족이 함께 하는 소집단 활동 모임 등을 구성·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양육 기술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을 활성화함.
-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과 문화경험 기회 확장이 필요함.
  - ▶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지역 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적극적 서비스의 제공이 유용함.
  - ▶ 문화경험이 추후 학습과 사회적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경험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홍보와 자녀와 문화생활을 함께 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권미경 부연구위원 mkkwon@kicce.re.kr

- 김희진·김은영·김현주·최명희·고지민·강재희(2011). KICCE 부모 양육수준 검사지.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안전행정부(2014).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다음에서 발췌 http://durl.me/79bexk.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 7. 3.)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미발간 자료.
- 장명림·권미경·김혜진·공요은(2013).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